

## 정책 단신

### 문화·관광

- 영국, 모든 도심공간을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

### 사회·복지

- 도쿄, 고품질 소비생활 피해방지 캠페인 실시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민간 자원을 활용한 사회보장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 산업·경제

- 파리시 동네 소형 서점들, 협동조합으로 활로 모색
- 런던시, 중국과 아시아 기업을 위한 기업 특구 지정
- 보르도시 유라틀란틱 프로젝트를 통한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

### 행정·재정·교육

- 미국 오스틴시,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시정 아카데미' 운영

### 환경·안전

- 스페인 시클라나 데라 프론테라시, 하수정화시스템에서 차량연료 생산

### 도시교통

- 샌프란시스코시, 탄력적 주차요금제 시행 1년의 운영성과 발표
- 호주 시드니시, 새로운 점자 거리표지판 네트워크 시범사업 시행

### 도시계획·주택

- 호주 멜버른시, 커뮤니티 허브 조성계획 (2007~2017)

### 문화·관광

## 영국, 모든 도심공간을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서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에 걸쳐 도심 곳곳의 광고전시판과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세계적인 예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주최측인 'The Art Everywhere Organization'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술은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예술품 전시 행사를 개최 하면서 광고판, 빔 프로젝트, 버스정류장, 2,000여 대의 버스와 1,000여 대의 택시를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전시 하였다. 전시운영 기금은 지난 6월에 2주간 진행된 기금 모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3파운드(약 5천 원)의 기부도 받았다. 미술관이 아닌 도심 곳곳에서 유명 예술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 각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백화점 광고판(상) 길거리 게시판(하)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작품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9 318호



\*본 내용은 국토연구원 학술잡지 '국토'의 글로벌정보와 서울연구원 해외 도시정보 소식지인 '세계도시동향'의 관련 소식을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사회·복지

### 도쿄, 고령화 소비생활 피해방지 캠페인 실시

도쿄도 생활문화국은 2013년 9월을 ‘고령자 소비생활 피해방지 캠페인의 달’로 지정하고, 노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도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노인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33,541건으로 4년 연속 3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 상담건수에서 노인 소비자 피해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의 30%로 나타남에 따라 1개월간 집중적으로 피해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고령자 소비생활 피해방지 캠페인 포스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9 318호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민간 자원을 활용한 사회보장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서비스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호주 최초로 ‘사회보장 채권(Social Benefit Bond)’ 판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유나이팅 케어(Uniting Care)’라는 비정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주정부는 ‘호주 사회적 기업 연합회(Social Ventures Australia)’에 사회보장 채권 마케팅을 위탁하여 2013년 6월까지 700만 달러(약 7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유나

이팅 케어’에 이 자금을 전달하여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사업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유나이팅 케어’는 이 자금으로 향후 7년 동안 정부의 ‘가출청소년 서비스(Out-of-Home Care)’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사업(Newpin Program)을 수행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사업 수행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에는 원금과 정해진 투자이익금이 포함된다. 투자수익률은 가정복귀에 따른 정부 지출 절감분에 따라 결정되며, 성공적인 가정복귀 여부는 뉴사우스웨일즈 아동법원(NSW Children’s Court)에 의해 판단된다. 이 시범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보장서비스 재원조달 방식은 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며, 결과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민간합동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7 314호

산업·경제

### 파리시 동네 소형 서점들, 협동조합으로 할로 모색

그동안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서점이 있는 ‘책의 도시 파리’라는 명성을 누려 왔으나, 지난 수년간 급격히 오른 부동산 임대료와 아마존, Fnac 등 집으로 책 배송을 해주는 대형서점들 때문에 동네 소형 서점들의 폐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파리의 60개 소형 서점들은 2012년 ‘파리의 서점들(Paris Librairiesm <http://www.parislibrairies.fr/>)’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검색 및 공동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할로를 모색하고 있다. 파리의 서점들의 전략은 서점 간 책 검색과 공동유통 시스템을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고객이 책을 직접 본 후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간 및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유통하면서 구간이나



‘파리의 서점들’의 창설을 제한한 4개 서점 중 한 곳인 ‘르 디방 서점’

절판 본들 보유에 취약한 대형서점에 대항해서, 동네 서점들은 재고를 보유한 서점을 확인해 주는 검색 시스템을 새로 런칭함으로써 독자들은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일일이 서점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가까운 서점에서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7 315호

## 런던시, 중국과 아시아 기업을 위한 기업 특구 지정

런던시는 2013년 5월 런던 동부의 항구지역인 로얄 알버트 독(Royal Albert Dock)을 2022년까지 중국과 아시아 기업을 위한 영국 최대 규모의 기업특구(Enterprise Zone)로 조성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 기업특구 지정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ABP가 이 지역에 10억 파운드(약 1조 7,7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영국에 직접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로, 23만㎡의 업무시설과 30만㎡의 주거, 상업 및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기업특구는 금융산업, 첨단산업,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및 아시아 기업들의 영국 및 유럽시장 진출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1단계가 완료되는 2017년



기업특구 조성 조감도

부터 중국 및 아시아의 여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런던에는 두 개의 기업특구가 있으며, 런던시는 기업특구 지정 시 각종 세금 면제와 행정 편의 제공 등 개발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런던시는 이번 기업특구 지정을 통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매년 2,300만 파운드(약 407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조성 완료 시점까지 영국 경제에 60억 파운드(약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6 313호

## 보르도시 유라틀란틱 프로젝트를 통한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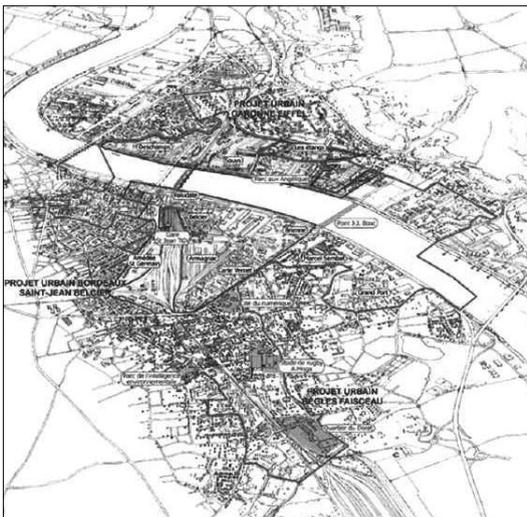
프랑스 보르도(Bordeaux)시 유라틀란틱(Euratlantique) 프로젝트는 3차 산업과 문화, 예술, 교육, 환경산업이 복합된 야심찬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국가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국영 사업이다. 목적은 유럽의 새로운 경제거점을 만드는 것이며 기업, 호텔, 창조경제 클러스터인 ‘메카’와 디지털경제 클러스터인 ‘시테 뉴메릭(Cité Numérique)’, 장인산업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창조경제 클러스터인 메카와 시테 뉴메릭에는 건축,

1 프랑스의 창조경제는 전통적인 장인 산업, 예술·문화산업을 장려하며 분야로는 조형예술, 시각예술, 장인산업, 음악, 출판, 창의적 관광, 광고, 디지털 창조, 예술 및 골동품 시장, 음식과 포도주, 패션, 디자인을 포함한다.

3D 이미지, 컴퓨터 게임, 디자인, 출판, 디지털 산업 분야가 집중된다. 총 15만㎡의 공간 내에 작업실에 마련되어 도시형 장인 산업, 중소기업 및 극소기업에게 제공된다. 또한 창조지구 내에 문화예술 교육기관을 집결하여 고급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을 형성하고 문화시설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보르도시가 프랑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순수 예술과 문화 산업을 접목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20세기에 지어진 창고, 구역사, 군대 막사건물 등의 내부를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구우편분류소는 디지털 거점 기능을 할 것이며, 환경인텔리전스 공원은 발로렘(Balorem)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이 입점하여 풍력발전 기술 및 환경 존중형 에너지와 건축을 집중 개발한다. 구동물학연구소 건물은 비즈니스호텔로 개조할 예정이다.

보르도시는 내일의 친환경 도시 에코시테(Ecocité)를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소로서 다양한 기술과 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혼합을 추구하는 곳으로 고령층과 학생, 예술인을 위한 시설이 조성된다. 문화 예술



보르도-유라틀란틱 지구

동호회, 중소기업들이 매개가 되어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체 부지는 738ha의 규모로 보르도와 주변 2개 코뮌에 걸쳐 있으며 가론 강(La Garonne) 좌안과 우안에 걸쳐 있다. 건설은 2014년 시작되며 2017년 개통 예정인 남부 대서양 철도 테제베 라인이 개통되면 파리와 보르도는 두 시간 내로 연계되고 남부 주요 도시인 툴루즈(Toulouse)와 스페인이 2020년 연결된다. 또한 주요 역인 생장(Saint-Jean)은 테제베, 지역선, 도시 간 연결선 및 지역 내 자전거 도로를 갖춘 다기능 역으로 거듭난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보르도시는 이를 통해 유럽 대서양 연안의 경제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국토지 2013-8 글로벌 정보

행정 · 재정 · 교육

### 미국 오스틴시,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시정 아카데미' 운영



시정 아카데미 포스터

미국 오스틴(Austin)시는 투명한 시 정부 운영을 위해, 그리고 시민이 좀 더 쉽게 시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 기

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시정 아카데미(CityWorks Academy)'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 아카데미는 지역단위로 시민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시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결정의 과정 등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주 또는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시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 일선 공무원 그리고 의회관계자 등이 주관하는 시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정부

의 운영, 지역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된다. 2009년 이래로 100여명의 오스틴 시민이 수료하였으며, 많은 시정 아카데미 수료자들이 각종 도시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는 200명 이상의 시민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8 316호

환경·안전

### 스페인 시클라나 데라 프론테라시, 하수정화 시스템에서 차량연료 생산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시클라나 데라 프론테라(Chiclana de la Frontera, 이후 시클라나시)는 최근 하수정화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연간 200대 이상의 차량에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세계 최초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가스(All-gas)’ 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조류(algae)를 하수정화조에서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전보다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류를 수확하였으며, 2013년 겨울에는 차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조류를 가공하는 프로세스를 거칠 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까지 3톤에 이르는 조류를 생산하여 연



정화시설을 이용하여 조류를 생산한 후, 이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인 하수정화시스템의 모습

간 200대 가량의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아쿠알리아(Aqualia)가 특별히 시클라나시 하수처리장을 시범사업지로 선택한 이유는 시클라나시가 일조량이 많으며 조류를 생산하기 위한 넓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정화시설을 소유한 아쿠알리아는 세계 3대 수자원관리 기업으로 도시 정화시설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프랑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이 시스템을 대체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연료의 질, 그리고 생산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원들은 장래에 도시의 하수시설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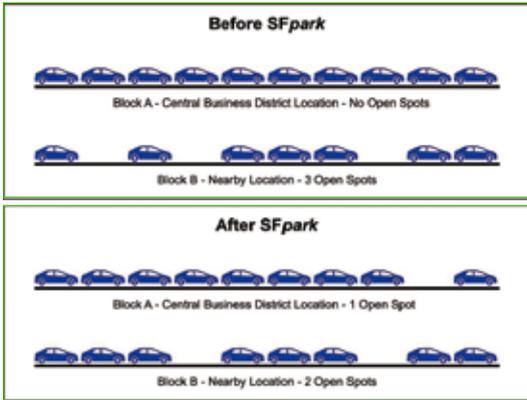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8 316호

도시교통

### 샌프란시스코시, 탄력적 주차요금제 시행 1년의 운영성과 발표

샌프란시스코시는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요금을 변동하는 ‘SF park’을 지난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 주차시스템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주차시스템이다.

새로운 주차정책의 초안을 마련하고 탄력적 가격정책을 주도했던 UCLA의 Donald Shoup 교수는 이 주차시스템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요에 탄력적인 주차요금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주차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 평균 주차 요금은 기존 주차시스템의 요금에 비해 1% 하락하였으며 주차공간을 찾아 배회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F park 시스템의 주차 수요의 분산효과 예시

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통행시간은 줄어든 반면, 시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주차요금은 기존의 요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공간 점유 정보를 수집하여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면도로에 적정 수준의 주차공간이 남아 있도록 해 주차공간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번의 고무적인 연구결과는 탄력적 주차 요금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도시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6년 올림픽을 준비 중인 리우데자네이루시 등에서 샌프란시스코시와 비슷한 주차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다른 많은 도시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도시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9 318호

### 호주 시드니시 새로운 점자 거리표지판 네트워크 시범사업 시행

시드니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거리표지판 네트워크를 시험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시의 '살기 좋은 친환경 네트워크(Liveable Green Net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시각장애인 연합회(Vision Australia)'와 '시



시드니 시내에 시범 설치된 점자형 거리표지판

각장애 인도견 연합회(Guide Dogs NSW/ACT)' 등의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자를 이용한 촉감장치 거리표지판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횡단 보도에 위치한 교통신호 버튼 옆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보행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여행경로를 알려준다.

이 새로운 거리표지판 네트워크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언어 및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들은 새로운 거리표지판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보행자들에게 위치나 방향을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독립성과 자존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3-7 315호

#### 도시계획 · 주택

### 호주 멜버른시, 커뮤니티 허브 조성 계획 (2007~2017)

멜버른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설이 요구되고 개선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한다.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계획이 제안되고 실현되는 가운데 멜버른 당국에서는 '2007~2017 커뮤니티 시설 계획(Community Infrastructure Plan)'이라는 10년간의 계획을 세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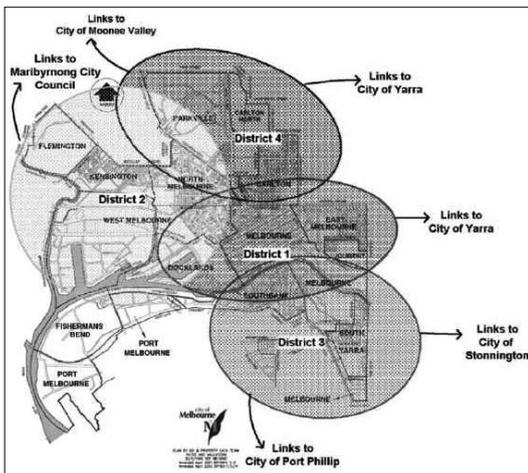
다. 이 계획은 도시 내에 4개 구역에 '커뮤니티 허브(Community Hub)'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지역민들의 생활 서비스 지원 개선은 물론 새로운 생활과 문화 창출을 고려한 야심 찬 커뮤니티 재생 계획이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선행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허브'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현지 사정에 맞게 개량하고, 단일 목적의 기반시설을 설립하기보다 다기능 복합 시설을 접목하고자 결정하였다. 그리고 인구수와 공간적 범위에 맞춰 7개의 인근지역(Neighborhood), 4개의 구역(District), 그리고 수도권(Regional/Capital city)으로 단계를 나누고 이후 인구 통계, 시민설문, 현지조사, 아이디어 수집 등 다양한 심사와 조사를 통해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두어 각 지역에 알맞게 구성하였다. 단, 각 지역 범위는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생활권과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 중 지역(Neighborhood) 허브는 지역의 사회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허브는 지역민의 다양한 사회 교류 지원, 가족, 여성 및 아이 건강 서비스와 같은 복지 서비스 지원, 그리고 동호회와 같은 지역민 모임을 지원한다. 이 허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 서비스가 포

함될 수 있다. 구역(District) 허브는 복합 교통 허브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주요 상업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각 구역 허브에 필요한 커뮤니티 기능을 세분화하여 기존의 시설을 바탕으로 필요적절하게 강화시킨다.

국토연구원 국토지 2013-8 글로벌 정보



7개의 인근지역(Neighborhood), 4개의 구역(District)의 위치